

창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

“신부님, 이 세상은 정말로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건가요?”, “학교에서는 진화(進化)가 인류 생성의 과정이라고 배웠는데요. 생각해 보면 진화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신자니까 창조론이 맞다고 해야 하나요?” 많은 신자들뿐 아니라 성경을 나름 꼼꼼히 읽었다고 자처하는 신자들도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일까? 교회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창세 1,1). 성경은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한다. 사도 신경에서 고백하는 첫 신앙 조문도 다른 아닌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다 :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성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은 이 세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신앙 고백이다. 즉 하느님의 세상 창조는 “단순히 언제 어떻게 우주가 물질적으로 생겨났는지, 또는 인간은 언제 발생했는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기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가톨릭교회교리서, 284항)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의 범주인 진화와 신학적 범주인 창조는 같은 물음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이 될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여 다른 하나가 버려지는 것도 아니다. 자연과학에서 진화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생명체와 우주 탄생, 발전의 메커니즘을 연구” 한다면, 신학에서 창조론은 “이 세상의 근원적인 시초부터 하느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고백”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지혜와 자비의 지극히 자유롭고 심오한 계획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들어 올려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교회헌장, 2항).

진화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 문제를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삼아, 우주의 생성 시기와 크기, 생명체의 등장, 인간의 출현 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풍부하게 해 주었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과 그리스도인 삶의 근본 그 자체”와 관련된 질문, 즉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의미의 원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진화에 관한 자연과학적 이론에서 찾을 수 없고, 하느님의 세상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82항 참조).

가만히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 “나에게 이 하늘과 자연과 세상은 어떠한 의미인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8월9일 청주주보, 김대섭 바오로 신부(복음화 연구소장)]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레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중훈/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옥 세레나/(건강)/브랜든 존스톤 (키모),
-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생	례속자 메릴리아 건강을 위해서	진엘리사
연			생		
연			생		

자	전 려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9월 1일(화)	연중 제22주간 화요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 1,050.00 \$ 1,155.00
9월 2일(수)	연중 제22주간 수요일	오전 7 : 30	도요 특전 교구 원 캠페인	\$ 57.00 \$ 950.00
9월 3일(목)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60.00 \$ 60.00
9월 4일(금)	연중 제22주간 금요일	오후 7 :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 (ACA)	\$ 188.00 \$ 165.00
9월 5일(토)	연중 제22주간 토요일	오후 7 : 30	성당발전기금 합 계	\$ 1,050.00 \$ 4,735.00
9월 6일(일)	연중 제23주일 주일	오전 9 : 00 오전 11: 00	미사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2~5 윤여훈 6~8월 장대석 7~8월 최응철 서량 8월 이명숙 김에릭 현익균 지복원 김진태 지영욱 박정희 8월~9월 이윤상 9월 김배국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송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신명기 4:1-2,6-8 제 2 독서 야고보 1:17-18,21-22, 27 복 음 마르코 7:8, 14,15, 21-23

화답송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신심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십계명의 1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위선자! 사전에 찾아보면 ‘겉으로 착한 체하지만, 실제로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울게 예언하였다.” (마르 7,6)하고 말씀하시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를 질책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복음에서 마르코 복음 7,6절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13의 말씀을 빌어 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의 삶은 구약시대에만 그런 것만도 아니었고, 신약의 예수님 시대 때만의 현상도 아니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느님께 대해서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들의 삶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가톨릭 신자인 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름을 바꾸었냐고 했더니 원래 자기 이름이 지금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다시 옛날 이름으로 되돌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하는 일이 왠지 자꾸 꼬인다는 겁니다.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지요, ‘아는데 물어보러 갔다’고 말합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꼭 단서를 답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찾아간 게 아니고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가는데 한사코 같이 가달라고해서 마지못해 따라갔었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럴 듯합니다. 자기 합리화는 어찌 그리 잘 하는지... 그래서 친구 따라 가줬는데 그 점쟁이가 자기도 봐줬다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름을 바꾸라고 하면서 원래 이름이 더 낫다고 해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 이름은 왜 바꿨냐고 했더니 역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이름도 점쟁이가 안 좋아서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는데 바꾼 이름을 다른 점쟁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다시 되돌렸다는 겁니다.

제가 예로 든 이 이야기가 단지 이 분, 한 분만의 모습일까요?

위선자의 모습. 위의 이야기는 알팍한 우리를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핑계로는 살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살기 위해서 꼭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열심히 척, 고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굶아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영혼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새롭게 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돈, 권력, 명예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건강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어느덧 하느님보다도 더 위에 서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의 모임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말이죠. ‘이러 고도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독서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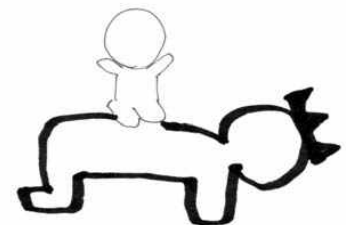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야고 1,21-22)

구담 본당 신기룡 안드레아 신부

장
중
지

내지칠 때

내가 지칠 때
가까이 오시는
아주 지칠 때
더 가까이 오시는
견디다 쓰러질 때
받아 안아 주시는
그분



유경환 클레멘스 · 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 · 화가

(공동체 소식)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1구역(FE), 2구역(FO), 3구역(PC), 4구역(NH), 5구역(GF), 6구역(RC), 7구역(RT), 8구역(NC), 9구역(EG), 10구역(DW)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8시)
- ◆ 문 의: 류승교 바오로 전교부장(916)708-6102

2. 봉성체(병자 영성체) 신청

- ◆ 주-신부님/ 셋째 주 -부제님
- ◆ 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살- 4일(금요일)- 봉성체

3. Mission Appeal

- ◆ 일시 30일(일)
- ◆ 사랑의 씨앗 수녀회 이선자 마리아수녀님

4. 이선자 마리아 수녀님 특강

- ◆ 일시: 30일(주일) 오후 1시 30분
- ◆ 주제: 하나님의 사람들
- ◆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5. 9월 구역모임 안내 - (금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구역	장 소	8월
1	12일(토) 오후 5시 Nisenan Community Park	20명
2	12 (토) 오후6시 30분 박대련 요한 형제님덕	24명
3	13일(일) 오후 5시 이만구 바오로 형제덕	11명
4	13일(일) 미사후 안젤모방	6명
5	12일(토) 오후7시 김채홍 어거스틴 형제덕	3명
6	14일(금) 오후 7시 성당 정자	13명
7	11일(금) 저녁5:30 김파스칼 (덕)	8명
8	13일(일) 미사후 요한방	17명
9	11일(금)오후7시. 서주연메리&서향형제덕(구역미사)	14명
10	12일 (토)오후6시 김재열 스테파노(덕)	14명

6. 성모 성심 미사 -

- ◆ 9월 12일(토) 오전 10시 30분-요셉회 만나회 모임 있습니다.

7. 본당 어른잔치

- ◆ 일시 : 9월 12일(토) 성모신심 미사 후
- ◆ 사회복지부에서 어른잔치를 준비합니다. 사목임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를 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재능기부 하실분 모집합니다

- ◆ 서예, 민속놀이, 사물놀이 동양화 고전무용 등등
- 연락처 : 오크리스티나 (한글학교 교장) (213)700-0051

8.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서 작성자는 총 91명입니다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100, 김상길\$100, 이애연 \$750	\$39,995.00

9. 감사합니다

- ◆ 이번주 점심봉사 : 울뜨레야 조 : 김채홍 어거스틴
- ◆ 다음주 점심봉사 : 성령기도회 보조 :신부님, 김용문(요한)

성전 건립기금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최베아파 (\$1000) 익명 (\$50)	\$63,137.21

성전건립을 위한 목주기도 30만단 봉헌

지난주 목주기도 봉헌	총 누 계
4634	257,358

모임안내

모임 : 30일(일) 오후 1시 교중미사후 마테오 방

- ◆ 연령회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점심제공)
- ◆ 마리아 수녀님 특강 전에 연령회의 끝납니다.
- 구역장 회의 : 9월 3일(목) 미사후 -유이방

알 림

● **성서백주간 새로이 시작합니다**

- ◆ 첫모임 : 10월 6일(화) 미사후 데레사방
- ◆ 연락 : 구비아 (916)801-6418, 이지연크리스티나(916)500-3830
- 북가주 성령기초 목상회 : 10월 16일(금) 오후4시~18일(일) 오후 3시
- ◆ 강사 : 김명선 사도요한 회비 :260불 선착순 :35명
- ◆ : Vallombrosa Retreat Center 250 Oak Grove Ave Menlo Park Ca 94025
- ◆ 신청 : 이순자요안나, 김은영폴리나
- 성당골프회 정기토너먼트-9월13일(일) 오후1시30분 애플마운틴

주일 /한글학교

- **주일학교 한글학교 학부모 총회**-9월 13일(주일) 오전10시,
- ◆ 학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 **주일학교 개학 - 9월 20일(주일) 9시 미사**
- ◆ 주일학교 등록 : 8월 23일(주일)부터, 등록비 \$50
- ◆ 문의:김미경 아네스(530)906-0265/오민정 크리스티나(213)700-0051

전례 봉사	08월 30일	09월 06일	09월 13일	09월 20일
해 설	이해련 (데 레 사)	김은선 (제노베파)	김은영 (폴리나)	임상일 (프란치스코)
1 독 서	이대원 (베 드 로)	류승교 (바오로)	박봉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이상인 (시메온)
2 독 서	이주연(크리스티나)	류재순 (마리안나)	김계숙 (효주 아네스)	유정임 (가브리엘)
복 사	원영일(미 카 엘) 류승교(바 오 로)	김재열(스테파노) 이대원(베 드 로)	김민규(다미아노) 윤여훈(로 마 노)	윤성훈(가브리엘) 송돈희(요 셉)
/기도/청소	1FE~2F0	3PC~4NH	3PC~4NH	3PC~4NH
헌금 위원	고공자 임그라시아	전비아 김미애	이나숙 정의주	송돈희 임상일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말날 성당에서도와드립니다 연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p>ShoGun Sushi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길성진 ☎(916)483-1224</p>	<p>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leelaw@gmail.com ☎(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 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신세계 여행사 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688-0157</p>
<p>한국위성방송 한국방송(MBC, MBC Everyone,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CBSBadook)+ (Direc TV) "무 료 설 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9</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p>East WestTravel (동서여행사)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 지나 ☎ (916) 362-0260</p>	<p>· 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tr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제인 안 변호사 파산법 전문 (, 사업법,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Exigo ITSolutions 컴퓨터 수리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support@exigoits.com web add.: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